

본. 석. | 세계 주요국 출판시장

# 미국·중국·일본 웃고 한국·독일은 울고

우리나라의 출판시장이 불황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세계 주요국들의 출판시장은 지난해 소폭이나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최근 발행한 '2005출판연감'에 따르면 일본 중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에서는 출판시장이 커지고 매출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독일에서는 불황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은 출판연감에 게재된 각국의 출판동향이다.

THE ODYSSEY HOMER  
CHARLES DARWIN  
DUMAS  
THE DESCENT OF MAN  
ON THE GREAT WALLS OF CHINA  
666RS

**중국** 2004년 한해동안 중국 출판계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했으며, 일관적인 출판정책을 펼쳐 많은 분야에서 건실한 성장을 했다. 중국에는 현재 570개의 출판사가 연간 19만종의 도서(신간10만종)를 출판하고 있다. 시장규모는 6조8천억원에 달하며 도서판매수익은 5조6천억원에 이른다. 중국 전국에 6만7천여개의 도서유통사무소가 있으며 500평방미터 규모의 서점은 1282개, 그중 1천평방미터 이상 규모의 서점은 22개이다.

중국에서는 연간 9165종의 정기간행물이 발행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 수입된 도서 저작권은 1만2516건으로 8798종이 북경지역에서 출판되었으며, 이는 전체에 있어 70%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중국이 가장 많은 저작권을 수입한 국가는 미국으로 5506(44%)건을 수입했다. 그 다음이 영국 2505건(20%) 일본 836건(6.7%), 독일 프랑스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본토와 홍콩 대만간의 저작권 교류도 매우 활발했다.

**일본** 2004년 일본의 도서 판매액은 9조42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1% 증가했으며 도서 판매부수는 전년보다 4.7% 증가하여 7억4900만부가 판매되었다. 잡지 판매액은 1조29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한해동안 일본에서는 7만4587종의 신간도서가 출판되었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2.7%증가한 수치이다. 2004년 일본에서는 도서 판매액이 증가했는데 이는 100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들 덕분이었다. 지난해 초에 젊은 여성 두명이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는데 최연소의 수상자로서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대상이 되었으며 그들의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다른 베스트셀러 작품은 5월에 영화화되기도 한 도서로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였는데 300만부 이상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다.

그 밖에 새로운 해리포터 시리즈 일본어판이 9월에 출판되어 초판으로 290만부가 판매되었는데 이는 일본 출판역사상

초판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수치이다.

**프랑스** 프랑스출판협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프랑스 도서 매출액은 북클럽을 포함할 경우 3조6400억원, 북클럽을 제외할 경우 3조25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에 비해 1.6% 신장한 수치이다. 도서 판매는 1.5% 증가했으며 저작권 수출(총도서 매출액에서 4.2% 차지)은 2.9% 증가했다. 2003년 한해동안 프랑스에서는 6만5745종의 도서(신간 3만963종, 재판 3만4782종)가 출판되어 총 5억3300만부가 발행되었으며 종당 평균 발행부수는 8110부였다. 문고판 도서의 판매가 전년에 비해 3%증가하여 판매액이 4천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총 도서 매출액에서 12.6%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분야별로 도서 매출액을 비교하면 문학(17.7%), 실용서(13.3%), 교육(12.9%) 인문사회과학(11.3%) 아동도서(10.5%) 사전/백과사전(9.7%) 과학기술(6.4%) 만화(6.1%) 예술(5.8%) 시사/에세이(3.8%) 종교(1.5%)순이었다.

프랑스 국내에서의 도서 판매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3년 전반적인 프랑스 도서 수출은 0.5%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 이유는 유료화의 가치 절상과 불어의 쇠락으로 해석된다.

**독일** 2003년 독일 출판계는 독일의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운 실적을 보인 한해였다. 2003년에 약간의 성장을 기대했으나 연말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소비 심리는 개선되었으나 이것인 실제적인 구매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독일 도서 매출액은 2003년 12조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1.7% 감소한 수치이다. 2003년 독일에서는 8만971종의 도서(신간 1만9433종 초판 6만1538종)가 출판되어 7억7400만부가 발행되었는데 이는 2002년 처음으로 33% 증가한 데 이어 그 증가세가 계속 이어진 것이었다. 단행본 도서 및 실용서의 출판종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발행되었다. 2003년은 독일의 온

라인 서점 성장 속도가 감소한 한 해였다. 독일출판서적상협회는 독일 온라인 서점들의 매출이 10% 증가하여 매출액이 4700억~54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인터넷 상의 도서 판매뿐 아니라 문구류, 도서와 상관 없는 상품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 러시아 도서회의소에 의하면 2003년 러시아에서는 8만290종의 도서가 출판되었고 7억2030만부의 도서가 발행되었다. 출판종수는 15.1% 발행부수는 21.8% 증가했다. 러시아인구수를 감안하면 러시아 인구 1인당 5권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년에 비해 현격히 증가했다. 1999년에는 인구 1인당 3권이 발행되었다. 러시아도서회의소는 도서 시장 지수로서 도서 출판종수가 전 소비에트연방 시절인 1980년대 중반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미국의 서점 판매는 2003년에 2.4% 증가하여 16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통계청의 추정치이다.

비록 많은 e-book공급자들이 시장에서 철수하기는 했지만 2003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140만부의 e-book이 판매되었다. 이 수치는 전년에 비해 64% 증가한 것이다. Open eBook Forum(OeBF)에 의하면 처음으로 한 회계연도에 100만부 이상의 e-book이 판매되었고 3/4분기에만 37만 7095부가 판매되었다. 이러한 증가로 인해 판매액도 전년에 비해 37% 증가했고 매출은 260만 달러(26억원)에 달했다. OeBF가 발표한 이 수치들은 프랭클린 전자출판사, 하퍼콜린즈, 휴튼 미플린, 맥그로힐, 존 와일리 앤 선 등과 같은 30개의 e-book제작사들, 소매상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OeBF의 국장 닉 보가티에 의하면 이 두 자리 성장률은 e-book산업의 잠재력과 힘을 보여주는 것이며, e-book분야는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출판분야이다.

미국에서는 2003년 총 2159종의 e-book이 제작되었다.